

서부권

목포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하나하나

삭감된 예산 예결특위서 28억원 슬그머니 부활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2011년도 예산안 대부분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 '상임위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목포시가 편성한 2011년도 본예산 5439억원 가운데 심의과정에서 66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목포시의 내년예산 총 규모의 1.2%에 불과하지만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처럼 많은 액수가 삭감된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과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부활했던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됐다.

예결위에서는 총예산의 0.69%에 불과한 37억5000만원을 삭감, 상임위에서 삭감한 28억원이 되살아난 것이다.

9대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예산심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버스재정 지원금(시비) 8억6000만원 가운데 15%인 1억2000만원을 만장일치로 삭감했으나 예결위서 슬그머니 부활했다.

또 ▲세라믹 일반 산업단지 편입보상비(52억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 잔여지보상비(3억원) ▲택시 고급 브랜드화 복장 지원비 등은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서 되살아났다.

이에 반해 기획복지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는 상임위 안이 예결위서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돼 대조를 이뤘다.

예결위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가능한 모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결위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과적으로 '공명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시의원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료보완과 함께 예결위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을 펼쳐 총

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서 부활하는 것은 상임위와 예결위 사이에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집행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차라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줄이고 예결위 심의기간을 늘려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목포시 2011년도 본예산은 오는 21일 제289회 8차 본회의서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청정해역이 키운 완도産 매생이 채취

완도군 약산면 어민들이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채취에 여념이 없다.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해조류인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단백질 등이 풍부해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문조기자 ejchung@

화물선박 항세 감면 내년부터 전면폐지

목포신항 활성화 '먹구름'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목포신항 부두를 이용하는 외항선 및 화물선박에 대해 감면해주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어서 목포항만 활성화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4년 개장한 목포신항은 자동차를 선적하는 국가부두 1개 선석과 컨테이너와 조선자재 선적 등 민간 부두 3개 선석을 갖췄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0% 감면받아오던데 올해 들어서 75%로 감축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박과 화물 입·출항, 정박료 등 전면 감면을 폐지할 광역의 접근이 쉽고 목포항보다 운항시간이 짧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속선 취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 및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선납제도 도입, 사용자 감면제도의 일제정비 등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항만관계자들은 "배후산단 열악으로 물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항세감면을 항만 마케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시기에 사용료를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책으로 감면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부두 민간투자 실시협약 제 57조 제7항(비재정적 정부지원)에 의거, 항만 조기활성화 및 사업성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능력 100% 달성시까지 감면유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박상혁 사무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업체·단체)의 의견을 조화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장(청장 정창원)은 내년엔 서남권 활성화 및 대중국 등 화물량 증가에 대비 목포항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항만건설 사업비로 372억원을 투입,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신설 ▲목포북항 배후단지 조성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등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세상 17~19일 목포 자연사박물관서 사진전. 목포에서 이색적인 야생동물 사진전이 열린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시지부(지부장 박준성)는 오는 17~19일 3일간 목포 자연사박물관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란 주제로 야생동물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쇼팽·슈만 200주년 음악회 '후원자 감사의 밤' 목포복지재단. 진도 팽목~신안 홍도 쾌속선 내년 취항. 진도군 팽목항과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오가는 쾌속선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 운구 400년만의 재연. 1598년(선조 31)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운구행렬이 400여년만에 재연된다. 안도군은 "문화재청과 경상남도, 전남도, 충청남도, 덕수씨씨 충무공파의 후원으로 안도군, 남해군, 아산시가 주축이 돼 16~17일 이틀간 안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만원 원 투자기대 매수용도 매도 3억8천. ■매도·교환: 남구 신정동 영산강철현국. 잡종지 840평 남향. 전원생활. 사철적합. 3억7800만원.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광주~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대표번호: 011-620-396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호남랜드공인중개사. 건물매매(웅봉지구): 신안동 웅봉지구 원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 8(181평) 매매가75억. 부동산 전월주택지: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다량보유). 구함: 장성 남면, 진원면 농장 및 전, 답.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공단, 매대, 임대 전문 매대,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15,000평 ▶건물: 900평 ▶매대가격: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2400평(계획관리) ▶건물: 580평(동력200k) ▶매대가격: 협의후 결정.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